

산업현장 밀착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산자부, 처음으로 기업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활용사업 시행

산자부는 정부지원이 종료된 지역혁신센터(RIC)를 대상으 로 센터내 구축한 인프라(장비 및 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 고, 기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성과활용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금년에 성과활용사업비가 지원될 센터 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대상 48개 중 17개를 선정(경쟁율: 2.8:1)하여, 센터당 2억원 내외를 지 원할 게획이다. 성과활용사업이 시행됨으로서 기업은 센터로 부터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산자부는 1995년부터 줄곧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100여개 곳 에 지역혁신센터(RIC-Reginal Innovation Center)를 설치 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업을 밀착 지원해왔다. 각 센터에는 정 부예산 지원으로 40여종의 고가장비가 구축하고. 대학교수 및 석·박사급 연구원 50여명이 참여하여 기업을 지원해왔 다. 센터 전체(100여개)가 매년 국내 제조업(11만개)의 3.2% 수준인 3,50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의 기술혁신 기 반을 확고히 제공하고 있다.

성과활용시업에 응모한 32개 센터의 기업지원 실적

장비활용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기술지도·이전	
기업수	지원건수	기업수	기업매칭금	기업수	교육인원	기업수	지원건수
1,410개	70,800건	103개	75억원	670개	7,108명	24 4개	2,312건

그러나, 이들 센터에 정부지원이 종료될 경우 센터스스로 장비 전문가 인건비와 노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등 센 터운영재원 확보는 국내 산업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센터이용 고객이 대부분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 저가 로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임

※ 국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04년) : 기업수 99.4%, 생신량 48.6%

※센터이용 시 저렴한 비용이 미치는 영향조사(국토연구원 '04.11): 크거나 매우 킘(62.9%), 보통(29.3%), 작거나 매우작음(7.9%) 산자부는 이들 센터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애로를 꾸준히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성 과활용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성과활용 지원대상 17개 센터는 인프라 활용실 적이 우수하고 향후 인프라 활용 역량이 돋보인 센터를 엄선 한 결과이다. 특히, 산자부는 이번 선정과정을 통해 RIC성과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센터를 소개 하고 있다.

- 전북대학교 RIC(센터소장 : 양균의 전북대 교수)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극복하는 한편, 전주공단에 미니벤쳐 단 지를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관련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

2006년 성과활용사업 지원대상 선정결과

NO	소재지	센터명	주관기관	센터소장
1	전북 전주	자동차부품 금형 지역기술혁신센터	전북대학교	양균의 교수
2	전남 무안	식품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목포대학교	박양균 교수
3	경기 화성	전자부품소재 지역기술혁신센터	수원대학교	김영호 교수
4	전북 전주	농기계부품 개발 및 생산 지역기술혁신센터	전주대학교	김건회 교수
5	경남 사천	경남지역특화 지역기술혁신센터	경상대학교	조광제 교수
6	대구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	계명대학교	김태권 교수
7	충북 영동	생물(의약, 식품) 지역기술혁신센터	영동대학교	노용택 교수
8	전북 군산	자동차 새시부품 지역기술혁신센터	군산대학교	최규재 교수
9	제주	기능성바이오첨가제 및	제주대학교	김세재 교수
		농업해양 지역기술혁신센터		
10	인천	소재 경량화 지역기술혁신센터	인하대학교	김명호 교수
11	강원 원주	첨단 의료기기 지역기술혁신센터	연세대학교	윤형로 교수
12	경남 창원	경남지역특화 지역기술혁신센터	창원대학교	정윤교 교수
13	인천	기계전자 지역기술혁신센터	인천대학교	우창기 교수
14	광주	조선대학교 지역기술 혁신센터	조선대학교	정재강 교수
15	강원 춘천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강원대학교	김광우 교수
16	경남 마산	경남지역특화 지역기술혁신센터	경남대학교	강재관 교수
17	충남 천안	충남지역 신가공 지역기술혁신센터	순천향대학교	방재철 교수

화하였으며, 3년동안 416개의 기업을 지원

- 수원대학교 RIC(센터소장: 김영호 수원대 교수)는 경지지 역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에 전자부품관련 첨단기술 장비로 특화하여 구축하고 One Stop service로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였으며, 3년동안 210개 기 업을 지원
- 목포대학교 RIC(센터소장: 정순택 교수)는 열악한 지역 산업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전남북 소제 식품제조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성공모델사업으로서 3년간 675개기업을 지원
- 전주대학교 RIC(센터소장: 김건회 교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라북도 김제에 센터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여건에 맞 게 시업을 적절히 추진하였으며, 3년간 158개 기업을 지원
- 산자부는 지역혁센터(RIC)의 기업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C사업 개선 종합대책'을 10월에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힘
- 이를 통해 RIC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어 명실상부한 지역 역 신체계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설명

정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키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국회통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04.11월 발의(이광재 의원 대표발의)된 이후 2년간의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06. 9.29(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법률은 공포후 6월(07.3월)이후부터 시행될계획이다

동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등 국가적인 이익에 심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기업 등이 이를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준하여 처벌토록 하는 한편,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기술수준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폰, 반도체 등 많은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지만 산업기술의 보호수준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설비나 인식이 미흡하여 주 변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등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동 법률은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법의 적용대상을 기업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넓히는 한편, 적용범위도 영업비밀을 포함한 산업기술 전반으로확대하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시책을 수립·추진토록하는 한편, 이를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하였다.

국가핵심기술의 승인제 도입, 기술개발 지원, 교육·홍보 확대 등 사전적 예방 체제로 전환하여 기술유출방지 의식을 제고토록 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는 사후적인 처벌이나 조 치보다는 사전적으로 방지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산업 기술 보호조치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지 침을 수립하여 보급토록 하고, 산업보안협회의 설립을 통해 각종 피해상담·정보제공·교육·홍보 등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아울리 중소기업등의 보안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과 보안산 업분야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여 산업보안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국내보안산업 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업기술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정보수 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 응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축소하도 록 하고 기술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 였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신속한 조정하여 기업 등의 시간, 인력·비용을 절감토록했다.

불법적인 기술유출은 기업도산, 기술개발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종업원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법의 엄중한심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술유출로 인해 얻은이득도 몰수 하는 등의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였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법률은 기술유출방지의 파수꾼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견인차 역할 수행하였다.

현대는 기술전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술보호 및 타국의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은 연간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분야,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우위 유지할 수있다.

기술유출에 따른 경쟁국의 짝퉁시장 창출을 조기에 방지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이전, 매각등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기간산업의 보호, 국내 유사 동종업계의 국내외 시장잠식 및 고용감소 방지랗수 있다. 산업보안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보안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고용창출 유도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법률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동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06년

하반기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등 법률



